

온라인  
상담

사례지  
2021년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part.  
03

영유아 발달  
상담 사례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신체 발달, 발달 장애

•  
상담자의 자녀 성별 및 연령 정보는  
상담 의뢰 내용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언어 발달

# 29개월 남아 말더듬

상담 의뢰자: 29개월 남아, 모



### 상담내용

18년 2월생이고 지금 29개월 된 남아입니다. 영유아 검진 때도 말이 빠르다고 말씀하셨고 두 돌 전부터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지금은 모든 문장을 불편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두어달 전부터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읽고 싶어.”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내내내내내가 책을 읽고 싶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도 몇 번 더듬고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어떤 때는 말을 하려다 그냥 안하고 놀거나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엔 더듬어지면 자기도 말을 하고 싶으니 “내내내내”이렇게 계속 반복하지 않으려는 듯 숨을 크게 쉬고 “내내!” 이런 식으로 크게 강조해서 말해보는데도 다음 말이 안나오니까 “말이 안나와요, 소리가 안나와요, 말을 할 수 없어요.”하면서 속상해해요. 처음 더듬을 때 어린이집 선생님께도 물어봤었는데 생각주머니가 커져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생기는 버퍼링 같은거라 하셔서 그냥 두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줬거든요. 지금도 ‘괜찮다. 엄마가 기다릴게. 천천히 말해도 된다. 엄마도 아기 때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안심시켜주고는 있는데 혹시 치료가 필요한데 제가 방치하고 있는게 아닐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네, 질문 잘 보았습니다. 29개월 아기가 말더듬이 나타나서 걱정하신 듯 하네요. 말더듬은 24개월 이후 나타나게 되는데 발달의 과정에서 말하는 능력이 아직 미숙하여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으므로 연령이 어릴수록 2-3개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9개월 아기가 “말이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요, 말을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할 정도면 인지발달도 좋고 말도 잘 할 수 있는 아이인 듯합니다. 다만, 말을 잘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해요. 예를 들면 어머니께서 아이를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 ‘괜찮다. 엄마가 기다릴게. 천천히 말해도 된다. 엄마도 아기 때 그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는 말더듬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잘 해야 한다는 불안함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강화가 될 수 있을 듯해요.

말더듬의 원인은 대부분 환경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되어 있으므로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배려를 동시에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서불안의 요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환경적 요인을 해소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이에게 말더듬이 보인다면, 이 시기에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머니께서 평안한 마음이 되시는 것이 필요하고(어머니의 불안은 아이의 정서불안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아이가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차분히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아이가 안심하고 천천히 말을 할 수 있도록 고개를 끄덕여 주시거나 “응~, 그랬어~?”, “그렇구나”, “그래~” 등의 표현으로 수용해 주는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가 길게 문장으로 답해야하는 개방적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즉, 아이가 표현해야 하는 언어적 반응의 길이를 간단한 것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늘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이 아이의 말하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천천히 잘 해보라고 재촉하거나 대신해 주는 것은 오히려 열등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인형으로 역할극을 하시면 아이가 갖고 있는 인형이 짧은 문장으로 답할 수 있도록 또는 질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놀이를 통해 좀 더 안정적으로 언어표현이 발달할 수 있을 듯합니다.(예: 엄마 인형이 아기 인형에게 “oo가 좋아하는 것은 뭐야?”) 그 외에 동생이 태어났거나 이사 또는 어린이집 변경 등 환경의 변화가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그로 인한 정서불안이 원인으로 보이신다면 아이의 불안한 심리를 충분히 읽어주시는 표현으로 공감해 주시고 스킨십을 좀 더 많이 하고 부드러운 어조의 상호작용과 신나고 즐거운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에 산이나 공원, 숲을 찾아 자연물을 찾아 직접 만지며 자연물과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 안정이 되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sup>^^</sup>



## 언어 발달

# 말이 느린 아이 어떻게 육아해야 할까요?

상담 의뢰자: 19개월 영아, 모



### 상담내용

저희 아이가 19개월 21일 되었는데 말을 ‘엄마, 아빠, 뽀방, 멍멍’ 밖에 할 줄 모르고 다른 말을 가르치려 해도 하지 않으려고 하네요. 어떻게 양육해야 아이가 말을 할까요?

### 답변내용

어머니, 아이가 표현하는 어휘가 적고 언어를 알려주는데 아이가 관심을 보이지 않아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아이의 말이 늦는 경우, 언어의 두 가지 측면(언어의 이해, 언어의 표현)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달 연령에 따른 일반적인 언어표현과 언어이해에 대해 우선 다음과 같이 간단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온라인 답변의 경우, 전문가가 아이를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남기신 글의 내용만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아이가 말이 느린 원인들과 해결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16~18개월의 아동

- **언어의 이해** 아동은 대상영속성을 완전히 이해해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을 찾을 수 있고, 사람의 몸과 관련한 다양한 어휘를 이해합니다. 또한 사진(그림)과 실제 사물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책에 있는 사과를 보다가 집에 있는 사과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 **언어의 표현** 엄마, 아빠 같은 가족 호칭을 사용하고 ‘뽀뽀’, ‘뽀뽀’, ‘멍멍’ 등의 다양한 의성어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낱말을 익히고 사물의 이름을 말하고 말에서 억양이 느껴지고 얼핏 문장처럼 길게 말하기도 합니다.

#### 19~21개월의 아동

- **언어의 이해** 사물과 그 소유자(예. 엄마 바지, 아빠 책 등)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간단한 동사(예. 주다, 받다, 앓다, 가다 등)를 10개 이상 이해합니다. 또한 ‘손 씻고 밥 먹자’, ‘우유랑 사과 가져 오세요’ 등 3~4개 단어로 이루어진 한 개의 문장을 이해하게 되며, 이런 문장은 주로 부모님이 아이에게 뭔가를 전하는 문장(지시문장)인데, 아동은 이러한 부모님의 말을 이해하고 수행합니다.
- **언어의 표현** ‘엄마, 저거’, ‘이거, 저(취)’ 낱말과 낱말을 붙여 말하기 시작하고 ‘좋아’, ‘싫어’ 등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어머니의 아이는 또래에 비해 표현하는 어휘가 적어 언어발달에서 언어표현이 느리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아이의 언어이해능력은 어머니께서 작성해 주신 글만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언어이해능력은 표현언어들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의 언어이해 정도는 전문가를 만나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학병원의 소아과나 소아청소년정신의학과의 방문하여 실사가 가능한 영유아발달검사를 받아보시거나, 언어적 측면에 특화된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고해드립니다. 전문의에게 검사 결과와 권고에 따라 특수한 지도방법을 찾아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아이를 키우시는 주양육자가 언어발달에 필요한 자극들을 충분히 주었는지, 아이가 자유롭게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은 얼마나 있었는지도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일상적인 소통수단이기 때문에, 아이가 하루 중 자연스러운 일과나 놀이 속에 있는 경우라면, 자연스럽게 한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아동의 이런 발화에 대해 양육자가 정성껏 응해주는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이해/언어표현은 늘어나곤 합니다. 우선 집에서 아이의 언어표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조금씩 어휘 수를 늘려나가는 시도를 보다 즐겁게 아이가 원하는 시점에서 더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이에게 친숙하고, 관심 있어 하는 사물을 중심으로 하나씩 반복하여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어휘와 함께 비언어적인 행동(제스처, 목소리 톤)을 사용하신다면 아이가 좀 더



## 또래 친구들과 관계 부진

상담 의뢰자: 5세 여아, 모



### 상담내용

그동안 어린이집이나 기타 기관들을 보내지 않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듣는 문화센터 수업을 일주일에 두, 세 개씩 진행하다가 올해 5세가 되어 유치원 반일반에 입학시켰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무섭다하여도 초반이고 적응기간이라 그러려니 지켜보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이나 제가 지켜보기에도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양보심과 배려심도 많고 규칙이나 질서를 잘 이해하고 있지만 막상 어울려 놀거나 자기 의사표현이 서투려 곁돌고 혼자 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생활이 처음인데 이런 모습이 고착화되어 아이의 패턴이 되어버리는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도 같은 반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낯가림이 가장 심한 편이라고 하십니다. 주양육자인 제가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좀 더 스스럼없이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상담 문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5세 유아의 사회성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듯합니다. 4세까지는 엄마와 문화센터를 다니다가 5세에 유치원 입학했군요. 아이들은 영아기(4세까지)에는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그동안 엄마와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5세에 유치원 입학해서는 4세 때에 어린이집을 다닌 아이들보다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더 잘 지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이의 성향입니다. 아이가 내성적인 성향이라면 또래들과 어울리기를 힘들어할 수 있어요. 또는 부모의 과잉보호나 과도한 제한(통제)을 받은 아이들은 또래관계에서도 소극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염려가 되더라도 겉으로 표현을 하셔서 안 되며, 아이를 믿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제 유아기로 들어섰으니 일상생활에서 아이 스스로 무엇이든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해낸 것에 대해 구체적인 칭찬과 격려를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아이가 다시 해보도록 격려해주시는 것이 좋겠지요. 내성적인 성향의 아이들은 혼자 있을 때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또래와의 관계가 그만큼 에너지를 소모하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향의 아이인데 부모의 과잉보호 또는 과잉통제까지 있었다면 더더욱 어려움이 클 수 있겠지요. 또한, 낯가림이 많다는 것은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일 수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기질의 특성인 불안감과 두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의 특성과 기질에 따라 표현되는 행동의 원인을 먼저 분석해보시고 그에 따른 반응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지요. 부모의 걱정은 엄마의 불안감이 아이에게 전달되어 아이를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와 웃는 모습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맞춤, 표정, 손짓 등 엄마가 아이에게 진심으로 응답해주는 것이 곧 상호작용의 끈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영아기 때에 이 부분이 잘 되었다면 또래관계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니 기다려 주시면 좋을 듯하고, 만약 이 부분이 부족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아이의 마음 읽기를 해주시며 수용하는 언어표현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또래에게 다가가는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엄마가 수다스러운 것이 좋겠지만 때로는 아이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질문을 하시어 아이가 표현하게 하신 후 경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정과 친숙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와 기분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또래 친구를 한명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집 근처 놀이터나 서로의 가정에서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친구 한명이 있다면 그 친구와 놀이를 통해 재미를 느끼고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불안감 없이 다가갈 수 있게 되겠지요. 아이와 기질적으로 또는 성향이 비슷한 아이면 더 좋을 듯합니다. 같은 또래 중에서도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이 있으니 그런 친구를 만난다면 좋겠지만 아니라도 또래 친구 한명과는 잘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장소, 사람에 대해 경험할 기회를 주세요. 마트나 문화센터 등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부모가 모델이 되어주세요. 다른 친구들이나 엄마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대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행동 할 수 있으니 먼저 보여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네 번째는 “사랑해” 표현이 들어가는 동요들을 아이에게 많이 불러 주세요. 아이는 듣고 따라하며 노랫말에 이입이 될 수 있고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생각으로 또래에게 다가가기 쉬울 수 있습니다. 위의 몇 가지를 실천해 보신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다른 면에서 원인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는 있어도 발달에 따라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발달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고착 될 염려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라는 어휘를 아이에게 알려 줄 경우, 아이가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엄마에게 보낼 때나, 아이가 손으로 컵을 가리키는 행동으로 보인다면 “물? 00이 물 마시고 싶다고” “알았어, 그럼 우리 물 마시러 저기로 갈까?” “물 어딨나? 물 여기있네” 등 ‘물’이라는 단어를 자주 반복해 넣어가면서 아이의 욕구를 읽어주는 문장을 다양하게 표현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이가 이후에 ‘물’이라는 어휘를 이해했다면, 아이가 입모양으로 따라하도록 격려할 수 있겠습니다.(예. ‘00 물?’ ‘엄마 입을 가리키며) 물’ ‘00도 물 해보자, 물’) 그리고 아이가 ‘물’이라는 어휘가 익숙해진다면, ‘엄마 물’, ‘아빠 물’과 같이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함께 묶어 연습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아이가 즐거워하는 행동, 놀이 등의 상황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동차 굴리는 놀이를 즐겨워한다면, “차 빠방, 빠방 00 차 빠방 빠방 해볼까?” (자동차를 함께 굴리며) “응, 00도 이 차를 빠방 빠방 해본다고?”와 같이 아이와 상호작용하며 간단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언어나 인지발달, 신체나 감각운동의 발달을 점검해보는 게 매우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님 혼자 힘드실 때는 꼭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보시면, 아이의 발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이후 양육에 대한 방향이나 방법들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니,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사회성 발달

# 6세 여아 교우관계

상담 의뢰자: 6세 여아, 모



### 상담내용

6세인 저희 아이는 4세, 2세 동생이 있고 현재 휴직 중인 제가 주양육을 하고 있어요. 사람유치원을 다니다가 아빠의 갑작스런 발령으로 올 2월부터 새롭게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입학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2세 여동생을 돌보는 동시에, 4세 남동생이 같이 놀이터에서 놀기 때문에 저희 아이 옆에 계속 붙어있지는 못하지만 친구들과 무리에서 잘 노는지 가끔 확인하거나 아이의 친구들에게 이런, 저런걸 물어보면서 잘 지내는지 항상 체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제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4명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데 A, B, C친구들과 하원 후 3시간정도 놀이터에서 자전거, 킥보드 타기, 소소한 역할놀이 등을 하며 보냅니다.

A는 외동이고, 맞벌이 부모로 인해 하원지도 후 놀이터에서 3시간 놀이하는데 항상 돌봄선생님이 옆에 붙어있습니다. 저희 아이와 B, C도 A와 같이 놓고 싶어 하는 상태예요.

B는 남매이고, 3세 남동생이 있으며 아이의 엄마가 항상 남동생을 돌보며 옆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와도 잘 놀지만 A가 오면 그쪽으로 가요.

C는 외동이고, 맞벌이 부모로 하원시간이 1시간 늦어 항상 늦게 놀이터에 합류합니다. 친구들과 사이에서 인기는 없지만 아이 엄마가 친구들과 놀이할 때 함께 다니며 간식을 사주고 같이 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 상황이 있었어요. 4개 의자가 있는 휴식공간에서 저희 아이와 A, B, C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전거를 타고 다시 돌아와 앉았습니다. A가 앉았던 자리에 저희 아이가 앉자 A가 "내 자리야. 저리가."라고 짜증내며 토라졌고 이를 본 돌봄선생님이 "여기는 정해진 자리가 없는거야. 빈자리에 앉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A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나빠. 난 그 자리에 앉고 싶어. 거긴 내 자리야."라며 자리를 뺏고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 때 B, C가 저희 아이에게 "A 자리에서 나와. 거긴 A자리잖아."라며 편을 들었고, 저희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앉아있었습니다. C 엄마가 "정해진 자리는 없는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라며 상황을 정리했고 B, C가 저희 아이 옆에 와서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며 셋이 놓고 있자 다시 A가 와서 기분이 상할걸 친구들한테 표현하였고, 놀이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또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A, B가 저희 아이와 C에게 "너희는 1층에서만 놀아. 올라오지마. 올라올꺼면 너희 엄마한테 허락 받고 와."라고 말하며 따돌렸습니다. 아이가 울며 저에게 왔고 잠시 후 돌봄 선생님이 "허락을 왜 받아. 여긴 같이 노는 놀이터고 놀이기구에는 허락 없이 올라갈 수 있어. 그건 잘못된거야. 사과해."라고 하자 A가 "선생님, 나빠. 엄마한테 이를꺼야. 귀찮게 따라오고 같이 노는거 싫어."라며 아이들 앞에서 저희 아이를 따돌리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A, B가 자신을 빼고 논다고 스트레스를 받고 속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A, B와 놀지 말고 C와 더 재밌게 놀라고 했더니 A랑 놀고 싶다는 이야기를 안듣습니다. A와 꼭 같이 놀려고 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다른 여자 친구들과 놀라고 해도 싫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아이의 교우관계가 좋아질까요?

### 답변내용

6세 아이를 양육하시느라 늘 몸과 마음이 바쁘시겠습니다. 더군다나 모두 유아기이니 엄마의 관심과 도움이 아직 많이 필요할 나이이지요. 보내주신 사연은 잘 읽었습니다. 6세 여자 아이들 사이에서의 힘 겨루기와 자기 주장하기 과정 중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안심 하실 수 있는 것은 비단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계 역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성이 강해지는 시기이니 만큼 아이들은 자기 맘대로 활동을 하고 싶은 맘이 많은데 또래관계 내에서는 같은 연령이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힘의 차이에 따라 입장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도하고 힘이 있는 아이는 자기 주장이 점점 세어지고, 조용하고 수동적인 경우에는 강한 친구의 힘에 눌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가 친구로부터 따돌려지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마음이 많이 상하실 것입니다. 우선은 내 아이가 평소 가정에서도 자기주장을 잘하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집에서 그러지 못하다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친구들에게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것에 지나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강한 친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아이의 마음과 생각이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아이 스스로가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하다면 상황을 보는 조망 능력을 길러주시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유독 우리 아이에게 반복된다는 것은 상대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그 상황에서 재치있게 반응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아이 골고루 부족함 없이 카우시기에 힘겨우실 것으로 압니다. 이번 경험으로 첫 아이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실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나씩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며 성장하는 것이니 만큼 고된 일이다 라는 마음보다는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잘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 발달

# 회피애착

상담 의뢰자: 6세 남아, 모



### 상담내용

6세 남아인데요. 5세까지는 저랑 애착형성이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한 해 회피형 애착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동안 외가식구에게 맡기고 아이에게 설명도 잘하고 헤어졌는데 돌아올 때 저를 크게 반기지 않고 보는 등 마는 등 대하는 모습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질문1. 만4세인데 제가 더 노력한다면 안정애착으로 변화될까요?

질문2. 너무 늦은 건가요?

질문3. 애착을 위해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스킨십은 한다고 하긴 하는데 로봇, 공룡 등 놀잇감으로 놀아주는 부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큰 문제인거 같습니다.

### 답변내용

5세까지 어머니와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된 것 같았는데 1년간 외가에서 생활하다 돌아온 아이의 행동을 보니 엄마를 보는 등 마는 등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으시네요.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애착은 생후 3개월경부터 18개월경 사이에 주양육자가 아기와 얼마나 애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었는가에 따라 안정 애착이나 불안정 애착 또는 회피 애착 등이 형성됩니다. 이 때 안정 애착이 형성되면 그 이후에 어머니뿐 아니라 주변 어른들이나 어린이집 교사와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잘 생활할 수 있게 되고, 엄마와 좀 떨어져 있어도 참고 견디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영아기에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었거나 또는 안정 애착은 형성되었으나 아이가 오랫동안 엄마와 떨어져 있었다면 만나자마자 엄마에게 달려와서 반갑게 안긴다든가 하지 못하고 멍뚱거리며 주위를 맴돌기도 하고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안정 애착의 중요한 요소는 아이와의 온정적인 상호작용과 아이의 요구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적절성 등이라 할 수 있어요.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아이가 주양육자였던 엄마와 떨어져 있었다면 아이가 힘들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이의 현재 행동에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이가 엄마보다는 놀이에 더 관심을 가질 경우 아이가 더 성장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와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누구에게 맡겨져 어떤 관계로 지냈는지,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서 아이에게 전화라도 자주해서 엄마의 목소리도 들려주고 '사랑한다'는 것을 자주 확인시켜 주었는지,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얼마나 느끼게 하였는지가 중요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아이의 행동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신다면 이전과 같이 노력하셔서 이제부터 다시 아이와 애정 어린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언어가 발달하여 말로 설명하면 이해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으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의 사랑과 애정을 충분히 느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아이의 감정이 어떤지 그 감정을 읽고 표현해주세요. "엄마를 많이 보고 싶었구나.", "OO는 슬펐구나. OO는 엄마가 많이 미운가보다~" 등 어머니가 이러한 공감적 반응을 해주면 아이는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하여 그동안 쌓였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어린 유아이기 때문에 스킨십을 많이 해주시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시고, 매일 아이와 함께 일정 시간 놀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이는 아이가 이끄도록 하고 어머니께서는 함께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며 재미있게 놀아주세요. 또 아이와 떨어져야 할 때는 이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니 말로 잘 설명해주시고 언제 돌아오는지 알려주시면 아이는 예측이 가능해져서 놀이에 집중하며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 정서 발달

#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길 원하는 아기

상담 의뢰자: 21개월 남아, 모



### 상담내용

21개월 남아입니다. 놀이터에 가면 다른 또래들은 자기 엄마와 웃으며 교감하며 지내느라 다른 엄마는 보지도 않는데 저희 아기는 늘 다른 엄마에게 관심을 끌고 웃어주길 바라고 다른 엄마가 웃어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엄마인 저를 따라다니기보다 다른 아이 엄마를 따라다녀요. 제 애정이 부족해서일까요? 저도 나름 상호작용을 해주고 놀아줄 때는 잘 놀아주는 편이거든요. 물론 방치할 때는 아이가 놀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자주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귀엽다고 잘 웃어주니까 아기가 그러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아기들이 원래 모두에게 사랑 받고 싶은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일까요? 제 양육태도와 관련된 증상인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매시간 숨바꼭질을 해달라고 하는데 매시간 응해주기에는 체력이 안따라주기도 하고요.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내용

답변에 앞서 우선 한 가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가정에서 엄마와 단 둘이 있을 때 잘 놀고 잘 웃는지요? 그렇다면 현재 아이가 밖에서 보이는 행동은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성이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진 아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많은 아이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여겨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엄마에게 애정반응이 없다면 이는 아이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에서 잘 놀아주시는 때도 있지만 놀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자주 혼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빈도가 어느 정도 일까요? 매일 아이에게 혼을 내시게 된다면 그 빈도는 좀 줄이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21개월이면, 활동량이 많아지고 고집도 생기고 생떼를 한창 쓸 연령이지요. 그래서 이 때, 엄마와 힘겨루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아이는 자기주장이 강해지면서 자신이 요구한 바를 이루어낼 때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아동의 심리발달상에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어낼 때 얻는 기쁨이란 누구든 행복하고 기운이 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허락이나 수용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아이가 혼자서 놀이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또 때론 혼이 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혼자 놀면서 탐색과 사색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생각이 커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이 나면서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구분을 하고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훈련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엄마 자신이 매번 아이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못해 주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는 마세요. 엄마의 반응이 없는 시간에 아이는 성장을 위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모든 상황에는 균형이 필요하니 혹시 나 자신이 아이와의 관계에서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지 못한다고 여겨지신다면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체 발달

# 육아관련 상담을 원하는 양육자

상담 의뢰자: 40개월 유아, 모



### 상담내용

40개월 아이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이가 언젠가부터 까치발을 들고 걸어요. 어린이집에서 '요즘 부쩍 까치발을 들어요.'라고 해서 걱정이 되어 정형외과에 가서 진찰도 받아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리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며, 걱정하실 일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까치발로 걸으면 안돼."라고 하니 이해는 하지만 계속 그러네요. 뇌에 문제 있는 아이는 눈도 안 마주치고 얘기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아이는 눈도 잘 마주치고 얘기도 잘 하는데 왜 까치발로 종종 걷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 답변내용

어머님 안녕하세요. 40개월 된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까치발로 걷는 모습에 당황스럽고 염려되셨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게 적절할지 고민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외과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들어, 더욱이 어떤 이유로 아이가 까치발로 걷는지 의문이 드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까치발로 걷는 것은 자폐아동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행동특성임을 감안할 때, 아이가 까치발로 걷는다는 것에 대해 막연한 걱정도 있으셨겠습니다. 또한, 보통 아이들이 걸음마 초기에 종아리의 근육이 긴장돼서 까치발로 걷는 것이기 때문이기에 현재(40개월)까지 까치발로 걷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의아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가 까치발을 하는 원인에 대해 온라인상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이가 까치발을 하지 않고 걸으면 통증을 느끼는지와 까치발을 들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부터일까요? 어머니님 글로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봤을 때, 우선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까치발로 걷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특정 상황에서 아이가 계속 까치발을 든다면, 그 상황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긴장이 많이 되었거나, 그 긴장을 풀어보는 행동방식으로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특정 상황이 아니라 수시로 까치발을 든다면 다음과 같은 원인들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에 맞는 방법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 뒤꿈치 인대의 의학적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습관적으로 까치발을 들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아이의 다리, 발 상태가 정상적이라고 하였다면 연령이 낮을 때부터 종종 했던 까치발을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욱이 아이가 어머니님 지도하셨던 말을 이해한다고 하였을 때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과 어머니의 피드백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어머니님 대화로 잘 지도해주시면서 아이의 습관된 행동을 줄여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머니님 시도해보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아이가 까치발을 들 때 어머니께서 "까치발로 걸으면 안 돼~."라고만 이야기하셨다면, 아이는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까치발에 스스로 당황하고, 까치발 걸음이 편했던 기억 때문에 이 행동을 쉽게 중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자녀가 스스로 행동을 조절해볼 수 있게 부모님이 대응하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제한설정 1-2-3단계}가 있습니다.

즉, 1단계에서는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까치발을 들거나 어머니께 지적을 받을 때 느끼는 당황스러움을 어머니님 알아주시고, 말로 읽어주시는 방법(감정 수용과 감정반영)입니다. 2단계에서는 아이의 까치발을 드는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음을 아이가 예측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제한점을 전달하기) 그리고 3단계에서 그 대신 할 수 있는 대안(행동)을 알려 줄 수 있습니다.(대안 제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체 발달

## 눈 치켜뜨기 증상을 보입니다.

상담 의뢰자: 30개월 영아, 모



1단계	“○○이도 모르게 까치발을 하게 됐어. 그래서 당황스러웠구나.” / “○○이는 까치발을 드는 게 편한가보다.”	감정 수용 / 행동 수용
2단계	“그런데 ○○이가 계속해서 까치발을 들면, ○○이 다리가 아파질 수 있고, 발과 발가락도 아파지고 말아”	제한
3단계	“그 대신에 엄마처럼 이렇게 걸어보면 어떨까? [올바른 걷기 행동 시범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알려주기].”	모델링을 통한 대안 제시

이 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단어와 문장으로 말씀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이 행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새롭게 습득할 행동을 어머니가 직접 보여주는 것(모델링)을 통해 아이가 올바른 걷기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올바르게 걷게 될 경우에 “○○이가 어떻게 걸어야 다리가 안 아파질지 알았네~”, “엄마가 보여준 것을 ○○이가 해보는구나!”와 같은 긍정적인 격려를 해주세요. 그런 방법을 간헐적으로 또는 자주 반복하시다 보면 아이도 새롭고 건강한 걸음걸이를 늘려갈 수 있을 겁니다.

둘째로, 아이에게는 발바닥이 온전하게 바닥에 닿는 그 촉감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발바닥에 무엇이 닿는 것이 싫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으로 걸으려고 노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이가 선천적으로 촉각이라는 감각상태에 과도하게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발바닥뿐만 아니라 손, 피부 등 다른 곳에서도 촉각에 예민함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아이에게 발바닥에 무엇이 닿는 것이 불편한지를 관찰하거나 물어보셔서 집안에서 편안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해결책을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을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까치발을 계속 자주 들게 되면, 정상 걸음으로 걷게 되지 않으므로 아이 발과 다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우에 뒤꿈치의 인대나 근육이 짧아져서 아이가 이후에 정상 걸음으로 걷는 것을 더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정형외과 혹은 발달 센터나 감각 센터를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만 3세경의 아이를 양육하시느라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의 행동에 세밀한 관심을 갖고 대처 방법을 찾으시려는 어머니의 노력이 아이를 양육할 때 큰 자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제시한 것을 잘 준비하셔서 꾸준히 시도해보시면 새로운 방법이 어머니에게도 보다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으로도 여전히 아이의 까치발 드는 행동이 줄지 않는다면, 집에서 가까운 전문병원을 내방하시어, 아이의 상태 및 발달을 점검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상담내용

만 2세, 30개월 아이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4일째 눈을 한쪽 위로 굴리는 증상을 보입니다. 영상을 볼 때 특히 많이 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조금 증상이 보입니다. 새로운 유치원에 적응기간이라 스트레스 받아 일시적으로 이러한 건지 관찰을지 걱정입니다.

### 답변내용

아이가 갑자기 눈을 굴리는 행동을 하니 좀 놀라셨겠습니다. 이제 30개월이 된 아이라서 아이에게 나타난 증상을 ‘틱’이라든지...어떤 증상을 붙여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측하신대로 새로운 유치원에 적응하느라 힘이 들어서 나타나는 행동일 수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우선은 유치원에서 뭐가 힘든지,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지 교사와 잘 상의해보세요. 그다음, 집에 올 때 아이의 얼굴 표정을 잘 살피셔서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으면 조금 안심하셔도 되지만 표정이 너무 지쳐있다면 유치원에 보내시는 것을 좀 더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집에 오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몸을 마사지 해주거나, 맛있는 간식을 주거나, 엄마, 아빠와 몸으로 하는 놀이를 하는 등을 해보실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 때 부모님께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아이의 눈 움직임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시고 ‘오늘은 줄었다’, ‘오늘은 늘었다’ 식으로 전전긍긍하시면 절대 안되며, “너 왜 눈 그렇게 뜨니? 하지마.”라는 식의 말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아이가 그 행동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고 행동이 감소하지 않고 더 증가된다면 그 때에는 소아정신과나 가까운 상담센터를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발달장애 발달장애

# 발달 장애 관련 상담

상담 의뢰자: 30개월 남아, 모



### 상담내용

30개월 남아입니다.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못합니다. 자기 이름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티비를 보여달라고 떼쓰는 편인데 TV를 안틀어주다가 아이가 너무 보채면 조금씩 틀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아직 밥을 혼자 못 먹습니다. 간신히 포크로 찢러주면 먹는 정도입니다. 언어는 외계어 형식으로 말하는 정도이고 엄마를 보고 '엄마~'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지 않고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말을 안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혹시 자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태껏 잘못 키웠구나 자책도 하고 반성도 합니다. 조연 부탁드리고 인천 계양구 쪽에 기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30개월이 되도록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정말 걱정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어머님이 말씀해주신 행동특성만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1. 혹시 시각이나 청각 등의 신체적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경우라면, 일단 병원에 가보셔야겠죠? 월령에 따라서 검사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아과에 먼저 내원하셔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 2. 발달장애의 가능성

어머님 말씀대로 발달장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특성의 발달장애라면 크게 자폐 스펙트럼이거나 지적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읽기, 걷기, 서기가 평균 월령에 맞게 이루어졌다면 자폐 스펙트럼의 가능성이 높고, 신체발달이 모두 다 일정 이상 늦었다면 지적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아정신과에 의뢰해 보셔야 합니다.

#### 3. 어머님께서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엄마의 훈육방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가 만약 잘못하셨다면 방법을 몰라서 잘못하신 것이지 방법을 잘 알았다면 당연히 아이에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되는 방식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훈육방식 중 가장 흔하게 잘못하시는 경우는 아이를 야단치지 말라고 해서 그냥 하는대로 내버려두고 아이에게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았을 가능성, 최악의 경우는 방임 혹은 학대의 경우입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방임학대의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아이를 야단치면 안되고, 수유해 줘야 한다는 생각에 그저 그냥 내버려두는 방식의 양육방식을 선택하셨을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은 가까운 상담기관에 가셔서 체크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가까운 기관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특별히 소개시켜 드릴만큼 잘 아는 기관이 없으므로 어머님께서 먼저 병원을 가서 체크해 보신 후에 집에서 가까운 기관을 검색해 보시고 선택하셔서 체크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발달장애 발달장애

# 자폐 증상일까요?

상담 의뢰자: 24개월 남아, 모



###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이제 하루 지나면 24개월 남아입니다. 카페에서 글을 보다가 우리 아기도 해당되는게 있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글을 올려보네요. 일단 아기가 호명반응이 너무 낮아요. 아기 아빠는 이름 부르면 쳐다보지를 않는다고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한 20번 부르면 3~4번 쳐다보긴 하거든요. 아기가 말이 아직 안트여 더 답답합니다. 호명작용, 눈맞춤 안되는게 자폐증상이라고.. 아기가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굴리면서 바퀴를 관찰하고요, 장난감으로 연달아 놓지는 않아도 자동차들을 모아 놓을 때도 있어요. 돌 이후에는 '밥먹자'하고 '의자 꺼내'하면 부스터 의자도 꺼내기도 했는데 요즘은 하지 않네요. '기저귀 갖고와'하면 기저귀도 갖다줬는데 안 갖다주고요. 호명반응은 저에게 좀 더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단어는 [엄마, 아빠, 맘마, 물, 어부바, 마마(할머니), 음메, 까까, 아니야, 치즈, 오이, 이거 뭐야] 정도인 듯 싶네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웅얼이를 더 많이 하네요. 원하는게 있으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아~~~ 아~~~' 하고요. 제가 '또 줘, 해봐.' 하면 안해요. '까까 또 줘.'라고 따라하지 않더라고요. 종이블록을 '이렇게 쌓는거야.'하면서 쌓아놓으면 따라하지는 않고 부셔요. 버튼 누르는 장난감 좋아하고, 현재 90cm에 13.5kg입니다.

### 답변내용

아이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궁금하셨군요.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증상을 아이에게 대입해보면 맞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불안한 마음에 확인을 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자폐증상이 호명반응을 안하고 눈맞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선택적으로 호명반응을 하고 자발적으로 아이가 필요에 의해 말을 하고 있네요. 24개월 아이들의 놀이는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는 현상은 자폐에서 나타나는 놀이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바퀴를 굴리는 모습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의 놀이는 전문가가 놀이하는 다양한 양상을 보고 현재 놀이가 발달적으로 적절한지, 놀이할 때 다른 자극을 주었을 때 관심을 보이거나 반응을 하는지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언어발달에서 아이가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단어 수준보다는 어휘를 적게 사용하고 있으나, 발달의 차이가 있으며 언어적/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필요할 때 자발적으로 시도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가 현재 한 단어로 표현하기 보다는 음성이나 몸짓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엄마가 반응해주면 같이 눈빛을 교환하는지, 아이가 요구를 할 때 엄마와 눈맞춤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진단은 36개월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관찰에 의해 짐작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안전하게 진단되고 아이의 발달을 돕는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관찰해 보시고 의구심이 드는 경우에는 전문아동상담센터나 소아정신과에 의뢰하셔서 현재 아이의 상태를 의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